

# 夫婦間의 感情的 自己露出 程度와 類型에 관한 研究\*

— 感情的 言語的 自己露出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egree and Type of Emotional Self-Disclosure of Husband and Wife

— Linguistic Self-Disclosure on Emotion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邊 敬 愛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Kyong Ae, Kyoun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金 順 玉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Prof. : Soon Ok, Kim

본 연구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를 알아보고, 그 유형을 분류한 뒤 관계되는 변인을 밝힘으로써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4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는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긍정적 노출의 경우는 심리적 변인이었으며, 부정적 노출의 경우는 가정환경적 변인으로 나타났다.
- 3)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남편의 경우는 완전폐쇄형(43.3%), 부인의 경우는 완전노출형(48.2%)이 가장 많았으며,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긍정적 자기노출에서는 상호노출형(43.7%), 부정적 자기노출에서는 상호폐쇄형(38.4%)이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 4)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판별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남편의 경우는 남성성, 부인의 경우는 자아개념으로 나타났다.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부부관계란 낯선 두 사람이 서로 공유하며 안정된 세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관계로서, 부부들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경험이 서로의

것으로 재확립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Berger & Kellner, 1980, 163-181). 특히, 오늘날의 가족형태는 부부관계에 중심을 둔 핵가족으로 변화하였으며, 부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하여 제반문제를 해결해 가는 쌍방적인 상호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조혜정, 1987, 178). 이러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며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출하는 감정적 자기노출은 부부

\*1993년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임.

상호간에 자기를 나타냄으로써 신뢰와 친밀감을 발달시켜 주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에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고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감정적 자기노출의 결핍은 현대에 이르러 부부간의 갈등과 불만을 누적시켰으며 부부관계의 안정과 행복을 위협하여 자녀와 가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처럼 감정적 자기노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부부관계는 상호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남편집단과 부인집단의 자기노출 성향만을 보고함으로써 한 쌍을 이루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부간 자기노출 정도나 유형을 간과하는 연구방법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그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한 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정도를 알아보고 그 유형을 분류한뒤 관계되는 변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은 어느 정도이며,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 심리적 변인중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1.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2.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3-1.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3-2.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4〉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 심리적 변인중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을 판별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무엇인가?

4-1.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을 판별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무엇인가?

4-2.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을 판별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감정적 자기노출의 개념

자기노출(self-disclosure)이란 용어는 Jourard와 Lasakow(1958)가 가장 먼저 정의한 개념으로서 "자기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도록 해주는 과정"이라 하였다. 또한 자기노출은 자신의 생각이나 필요, 느낌 등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언어적으로 제공하는 의사소통의 과정(Falk & Wanger, 1985)으로 규정하는 한편 Shapiro, Krauss와 Traux(1969)는 자기노출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들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자기노출에 대한 분류내용을 살펴보면, Scheiderer(1977)는 문제가 없는 자기노출(nonproblem self-disclosure)은 기쁨, 만족, 믿음이나 사랑을 나타내는 감정적 자기노출이고, 문제가 있는 자기노출(problem self-disclosure)은 슬픔, 불만족, 증오를 나타내는 감정적 자기노출이라고 구분하였으며, 광치화(1985)는 유쾌한 감정적 자기노출에는 사랑, 행복을 불유쾌한 감정적 자기노출에는 미움, 슬픔을 포함시키고 있다. Hoffman-Graff(1977)는 긍정적 자기노출(positive self-disclosure)이란 개인적인 장점이나 긍정적인 경험들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고, 부정적 자기노출(negative self-disclosure)이란 개인적인 결점이나 부정적인 경험들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Hoffman-Graff의 분류에서 긍정적 자기노출은 문제가 없는 자기노출 또는 유쾌한 감정적 자기노출과 유사한 개념이며, 부정적 자기노출은 문제가 있는

자기노출 또는 불유쾌한 감정적 자기노출과 유사한 개념임을 발견할 수 있겠다.

## 2. 감정적 자기노출의 중요성

자기노출은 무엇보다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증진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나 느낌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털어놓고 말하는 중에 자기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다른 사람이 자기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질감과 분리감을 느끼고 있을때 상대방과 유사한 나의 경험이나 느낌을 표출한다면 그러한 행동은 상호간에 이질감을 감소하게 하여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서해광, 1985, 8).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노출은 부부관계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일치하면서 가장 친밀한 노출은 결혼관계에서 일어나며, 결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배우자에게 더 많이 노출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들 사이에서는 자기노출의 높은 상호성이 존재하여 남편의 자기노출은 부인의 부부적응에 관계되었고 부인의 자기노출은 남편의 부부적응에 관계 되었으며, 특히 유쾌한 감정의 자기노출이 불유쾌한 감정의 자기노출보다 부부적응에 높게 관련되었다(Levinger & Senn, 1967).

## 3. 선행연구 고찰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기노출의 성차는 어떤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고정된 많은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Chafets, 1974),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주어진 표현적 성격에 따라 자기노출의 차이가 있는것(Biller, 1971) 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길량(1988)의 연구에서 연령과 직업에 따른 자기노출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자기노출은 부부중 남편의 경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기노출과 종교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유

대교의 남성들은 침례교도, 감리교도, 가톨릭교도보다 높은 자기노출을 한다고 보고하였으며(Jourard, 1971), 사회계층에 따른 자기노출은 인종과 더불어 연구되어졌는데 백인보다 흑인이 노출을 더 적게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요인으로 인해서 자기노출의 인종적 차이가 생기는 것이며, 낮은계층의 흑인과 낮은계층의 백인사이에서는 자기노출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Jaffe & Polansky, 1962).

출생순위에 대한 연구는 Diamond와 Muntz(1967)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둘째나 막내아이가 딸이보다 더 높은 자기노출 점수를 보인다고 하였다.

### 2) 가정환경적 변인

가족형태에 따른 자기노출의 정도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가계소득은 자기노출의 직업생활 하위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전길량, 1988).

### 3) 심리적 변인

성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노출은 성역할에 관계된 것이지 성자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며 성역할의 기대에 따라서 더 개방하는 경향이 있었다(Rubin, Hill, Peplau & Schetter, 1980). 한편, Shapiro와 Swensen(1977)은 노출하는 사람과 노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자아개념과 자기노출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아개념은 자기노출의 양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윤길성(1984)은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좀 더 개방적이며 건전한 정신건강을 가지고 더 나은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 1) 성유형

성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BSRI(Bem Sex-Role Inventory)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BSRI는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남성성 척도 6문항과 여성성 척도 6문항을 연구자가 선정하여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조사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구한 결과 남성성 척도에서는 .87, 여성성 척도에서는 .60으로 나타났다.

2) 자아개념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원식(1968)이 표준화한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아평가 척도 10문항과 자아긍정 척도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3) 감정적 자기노출

감정적 자기노출에 대한 측정은 Balswick(1975)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관한 질문지(The Expression of Emo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감정적 자기노출은 총 16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조사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구한 결과, 사랑과 행복의 긍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에서는 .86, 미움과 슬픔의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에서는 .77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분류를 위한 긍정적,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범 주		남편	부인	변 인		범 주		남편	부인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연 령	20대		28(11.3)	63(25.4)	종 교	무 교		93(37.5)	63(25.4)		
	30대		106(42.7)	105(42.3)		기독교		104(41.9)	118(47.6)		
	40대		77(31.0)	62(25.0)		불 교		24( 9.7)	29(11.7)		
	50대		36(14.5)	18( 7.3)		천주교		27(10.9)	38(15.3)		
	60대		1( 0.4)	0( 0.0)							
교 육 수 준	국 중 고 대 학 원	졸	0( 0.0)	4( 1.6)	가 족 주 기	범 주		부부빈도(%)			
		중	3( 0.4)	9( 3.6)		형 성 기	54(21.8)				
		졸	42(16.9)	128(51.6)		자 녀 출 산, 양 육 기	68(27.4)				
		졸	180(72.6)	96(38.7)		자 녀 교 육 기	81(32.7)				
		졸	25(10.1)	11( 4.4)		자 녀 성 년 기	30(12.1)				
		졸				자 녀 결 혼 기	15( 6.0)				
주관적 사회 계 층	상	총	0( 0.0)	0( 0.0)	가 족 형 태	핵 가 족		207(83.5)			
	중	총	39(15.7)	32(12.9)		확 대 가 족		41(16.5)			
	중	총	148(59.7)	172(69.4)	가 계 소 득	79만원이하		30(12.1)			
	중	총	57(23.0)	42(16.9)		80-109만원		47(19.0)			
하	총	4( 1.6)	2( 0.8)	110-139만원		57(23.0)					
				140-169만원		43(17.3)					
				170-199만원		34(13.7)					
출 생 순 위	만	이	86(34.7)	79(31.9)	200-229만원		23( 9.3)				
	중	자 녀	87(35.1)	107(43.1)	230만원이상		14( 5.6)				
	막	자 녀	75(30.2)	62(25.0)	자녀수	없음		45(18.1)			
				1명		46(18.5)					
				2명		120(48.4)					
				3명		22( 8.9)					
				4명		13( 5.2)					
				5명		1( 0.4)					
				6명		1( 0.4)					
직 업	전 문 직	16( 6.5)	10( 4.0)								
	경 영 직	77(31.0)	5( 2.0)								
	사 무 직	119(48.0)	32(12.9)								
	자 영 업	22( 8.9)	7( 2.8)								
	기 능 직	4( 1.6)	5( 2.0)								
	자 유 업	7( 2.8)	1( 0.4)								
	판 매 직	1( 0.4)	5( 2.0)								
	노 무 직	2( 0.8)	2( 0.8)								
	주 부 직	0( 0.0)	181(73.0)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정도의 높고 낮음은 척도의 중앙값인 24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200부 그리고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인천시에 각각 100부씩 600부(300쌍)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1993년 2월 8일부터 20일까지 부부 15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질문사항을 수정하여 1993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554부가 회수되었는데, 내용의 기재가 부실한 58부의 질문지를 제외한 496부(82.7%)가 최종적인 분석자료가 되었다.

##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 중회귀분석, 빈도, 백분율, 판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검증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 및 그 가족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 2.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와 차이

긍정적 감정의 자기노출 평균점수는 남편이 24.37점, 부인이 26.04점으로 부인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 역시 남편이 21.56점, 부인이 24.35점으로 부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표 2.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 및 차이분석

	남편 (N=248)		부인 (N=248)		paired t-value
	M	SD	M	SD	
긍정적 자기노출	24.37	4.65	26.04	4.95	-4.55***
부정적 자기노출	21.56	4.27	24.35	5.10	-6.82***

\*\*\* $p < .001$

paired t-test 검증결과  $p < .001$ 수준에서 긍정적 자기노출과 부정적 자기노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2).

## 3.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1)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남편의 긍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은 남성성 역할 태도가 높을 때,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 때, 자아개념이 높을 때, 가족주기가 앞단계일 때, 출생 순위가 맏이일 때, 종교가 있을 때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은 자녀수가 많을 때, 자아개념이 높을 때,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 때, 가족주기가 앞단계일 때,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일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남편의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에서 자녀수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책임으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이 가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형태가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확대가족일 경우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고부사이의 갈등해결과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가지 가족내의 문제가 핵가족보다 더 많이 내재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특히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아개념, 가족주기는 긍정적 자기노출과 부정적 자기노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 요인으로 인해서 자기노출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는 Jourard 와 Lasakow(1958)의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고,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그 사람 자신에게 가지는 자부심이 높으므로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노출을 하는데(Satir, 1972) 기인된 결과로 생각된다.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긍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에서는 남성성역할 태도( $\beta = .276$ ),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에서는 자녀수( $\beta = .178$ )로 나타났다.

표 3. 남편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 회귀분석

	긍정적 감정의 자기노출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	
	b	$\beta$	b	$\beta$
연령	-.235	-.045	-.608	-.127
교육정도	.209	.024	.197	.025
종교	.538	.112*	.386	.088
주관적사회계층	1.867	.267***	1.039	.162*
출생순위	-.899	-.156**	.050	.010
직업	.052	-.010	-.462	.093
가족주기	-.893	-.218**	-.565	-.151*
가족형태	.980	.078	1.609	.140*
가족소득	-.203	-.074	.072	.029
자녀수	-.395	-.093	.689	.178**
남성성역할태도	.496	.276***	.176	.107
여성성역할태도	-.208	-.100	-.107	-.056
자아개념	.059	.234***	.040	.171**
회귀상수	-.254		6.552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0.320(0.282)		0.116(0.067)	

@ 종교, 가족형태 변인은 Dummy화함

\*p<.05 \*\*p<.01 \*\*\*p<.001

2)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인의 긍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은 자아개념이 높을 때, 자녀수가 적을 때, 여성성역할태도가 높을 때,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은 가족주기가 앞단계일 때, 연령이 적을 때, 자아개념이 높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인의 긍정적 자기노출이 증가하는 것은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에게 할당된 시간과 노력이 감소하여 부인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여가가 증가하게 되므로 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정적 자기노출이 증가하는 것과 부합되는 결과이므로 결국 자녀수는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역기능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가족주기가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성들이 결혼전에 갖고 있었던 신

혼생활의 피상적인 기대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에서 오는 현실생활의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겠다.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긍정적 자기노출에서는 자아개념( $\beta=.213$ ), 부정적 자기노출에서는 가족주기( $\beta=-.184$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감정적 자기노출중 긍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은 남성성 역할태도, 부인은 자아개념으로 나타나 심리적 변인임을 알 수 있고,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은 자녀수, 부인은 가족주기로 나타나 가정환경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4.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

1)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분류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을 긍정적 노출과 부정적 노출, 그리고 그 노출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긍정적 노출과 부정적 노출이 모두 기준점수보다

표 4. 부인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 회귀분석

	긍정적 감정의 자기노출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	
	b	β	b	β
연 령	-.125	-.022	-1.041	-.180**
교 육 정 도	-.070	-.010	.540	.075
종 교 @	.489	.086	-.094	-.016
주 관 적 사 회 계 층	1.176	.136*	-.056	-.006
출 생 순 위	-.500	-.076	-.403	-.060
직 업	-.037	-.013	.022	.007
가 족 주 기	-.074	-.017	-.807	-.184**
가 족 형 태 @	.043	.003	-.431	-.031
가 계 소 득	-.089	-.029	-.017	-.006
자 녀 수	-.941	-.204*	.518	.109
남 성 성 역 할 태 도	-.200	.114	.143	.079
여 성 성 역 할 태 도	.333	.150*	-.053	-.023
자 아 개 념	.061	.213***	.042	.142*
회 귀 상 수	-1.251		14.218	
R2(Adjusted R2)	0.215(0.171)		0.125(0.076)	

@ 종교, 가족형태 변인은 Dummy화함

\*p<.05 \*\*p<.01 \*\*\*p<.001

표 5.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완전노출형	긍정노출형	부정노출형	완전폐쇄형	합 계
남 편	47(22.6%)	61(29.3%)	10(4.8%)	90(43.3%)	208(100%)
부 인	94(48.2%)	43(22.1%)	10(5.1%)	48(24.6%)	195(100%)

\*감정적 자기노출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분짓는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남편 40사례와 부인 53사례는 위의 유형분류에서 빠짐

높을 때에는 완전노출형, 긍정적 노출은 기준점수보다 높으나 부정적 노출은 기준점수보다 낮을 때에는 긍정노출형, 긍정적 노출은 기준점수보다 낮으나 부정적 노출은 기준점수보다 높을 때에는 부정노출형, 긍정적 노출과 부정적 노출이 모두 기준점수보다 낮을 때에는 완전폐쇄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의 빈도와 백분율은 표 5와 같다.

위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남편은 완전폐쇄형(43.3%)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인은 완전노출형(48.2%)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두 집단간의 상반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부정노출형보다는 긍정노출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2)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분류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을 남편과 부인의 높고

낮은 자기노출정도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본다면, 남편과 부인의 노출이 모두 기준점수보다 높을 때에는 상호노출형, 남편의 노출은 기준점수보다 높으나 부인의 노출은 기준점수보다 낮을 때에는 남편노출형, 남편의 자기노출은 기준점수보다 낮으나 부인의 자기노출은 기준점수보다 높을 때에는 부인노출형, 남편과 부인의 노출이 모두 기준점수보다 낮을 때에는 상호폐쇄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의 빈도와 백분율은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위의 분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긍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은 상호노출형(43.7%)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은 상호폐쇄형(38.4%)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반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남편노출형

표 6.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N(%)

	상호노출형	남편노출형	부인노출형	상호폐쇄형	합 계
긍정적 노출	87(43.7%)	21(10.5%)	52(26.1%)	39(19.6%)	199(100%)
부정적 노출	34(17.9%)	22(11.6%)	61(32.1%)	73(38.4%)	190(100%)

\*감정적 자기노출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분짓는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긍정적 노출의 49사례와 부정적 노출의 58사례는 위의 유형분류에서 빠짐

보다는 부인노출형이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5.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을 판별하는 변인

1)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을 판별하는 변인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판별하는 설명력 있는 변인은 단계별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성역할태도, 자아개념, 가계소득, 교육수준, 종교, 주관적 사회계층, 여성성역할 태도, 가족주기, 자녀수, 출생순위, 가족형태의 11가지 변인으로 나타났다(표 7).

그리고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구분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설명력이 높은 제 1 합수에서 그 절대값이 가장 큰 남성성역할태도(-.79)로 나타났다(표 8).

다음으로 표 9에서는 각 유형별로 정확히 판별할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완전노출형을 올바르게 판별할 경우가 44.7%이며 긍정노출형은 55.7%, 부정노출형은 20.0%, 완전폐쇄형은 67.8%로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판별할 확률은 56.73%이다. 이러한 결과는 판별분석을 통해 우연의 확률인 25%보다 31.73%의 판별력이 개선되었으므로 선정된 변인들이 유형분류에 매우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판별하는 변인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판별하는 설명력 있는 변인은 단계별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자녀수, 자아개념, 주관적 사회계층, 교육수준, 직업, 가족형태, 남성성역할 태도, 가족주기, 가계소득의 10가지 변인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7.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판별하는 변수의 단계별 판별분석의 결과

단계	변 수	다변수 F-ratio	Wilks' Lambda
1	남 성 성 역 할 태 도	9.064	.882
2	자 아 개 념	4.755	.824
3	가 계 소 득	3.856	.779
4	교 육 수 준	3.710	.738
5	종 교	3.072	.709
6	주 관 적 사 회 계 층	2.719	.683
7	여 성 성 역 할 태 도	2.531	.665
8	가 족 주 기	2.072	.636
9	자 녀 수	2.072	.616
10	출 생 순 위	2.069	.597
11	가 족 형 태	1.047	.588

F insufficient to enter analysis beyond step (F<1.00)

표 8.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 정준상관계수

변 수	합수 1의 계수	합수 2의 계수
남 성 성 역 할 태 도	-.79	.02
가 족 주 기	.55	-.99
여 성 성 역 할 태 도	.52	-.09
자 아 개 념	-.50	.41
주 관 적 사 회 계 층	.49	.02
출 생 순 위	.31	-.07
종 교	-.29	-.48
가 계 소 득	.21	.54
교 육 수 준	-.14	.19
가 족 형 태	-.11	.01
자 녀 수	-.03	1.01

그리고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구분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설명력이 높은 제 1 합수에서 그 절대값이 가장 큰 자아개념(.51)임을 알 수 있다(표 11).



표 9.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분류 결과 확률의 비교

Actual Group	Number of Cases	Predicted Group Membership			
		완전노출형	긍정노출형	부정노출형	완전폐쇄형
완전노출형	47 (100%)	21 44.7%	14 29.8%	1 2.1%	11 23.4%
긍정노출형	61 (100%)	6 9.8%	34 55.7%	0 0%	21 34.4%
부정노출형	10 (100%)	0 0%	1 10.0%	2 20.0%	7 70.0%
완전폐쇄형	90 (100%)	8 8.9%	19 21.1%	2 2.2%	61 67.8%
Ungrouped Cases	40	4 10.0%	16 40.0%	0 0%	20 50.0%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 56.73%

Percent probability of correct classification : 25.00%

표 10.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판별하는 변수의 단계별 판별분석의 결과

단계	변수	수	다변수 F-ratio	Wilks' Lambda
1	연령	7	7.026	.901
2	자녀 수	4	4.570	.839
3	자아개념	3	3.559	.795
4	주관적 사회계층	2	2.895	.759
5	교육수준	2	2.389	.732
6	직업	1	1.968	.709
7	가족형태	1	1.667	.609
8	남성성역할태도	1	1.522	.673
9	가족주기	1	1.284	.660
10	가계소득	1	1.507	.644

F insufficient to enter analysis beyond step (F<1.00)

표 11.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 정준상관계수

변수	수	합수1의 표준화 정준상관계수		
		합수1의 계수	합수2의 계수	합수3의 계수
자아개념	7	.51	.02	-.06
가족주기	4	-.47	-.11	.33
연령	7	-.41	-.90	.30
가계소득	2	.33	.33	.02
남성성역할태도	1	.30	-.28	.07
사회계층	2	-.13	.54	.66
직업	1	.12	-.34	.51
자녀 수	4	-.09	1.03	-.85
교육수준	2	.03	.29	.47
가족형태	1	.01	.08	.52

들이 유형분류에 매우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부부는 부인의 경우에 감정적 자기노출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긍정적 노출의 경우는 심리적 변인이었으며, 부정적 노출의 경우는 가정환경적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판별하는 강력한 변인은 남편은 남성성역할태도이고 부인은 자아개념으로 나타나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2에서는 각 유형별로 정확히 판별할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완전노출형을 올바르게 판별할 경우가 78.9%이며 긍정노출형은 30.2%, 부정노출형은 30.0%, 완전폐쇄형 45.8%로서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판별할 확률은 57.95%이다. 이러한 결과는 판별분석에 의해서 우연의 확률 25%보다 32.95%의 판별력이 개선되었으므로 선정된 변인

표 12.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분류 결과 확률의 비교

Actual Group	Number of Case	Predicted Group Membership			
		완전노출형	긍정노출형	부정노출형	완전폐쇄형
완전노출형	94 (100%)	75 78.9%	7 7.4%	3 3.2%	9 9.6%
긍정노출형	43 (100%)	23 53.5%	13 30.2%	0 0%	7 16.3%
부정노출형	10 (100%)	6 60.0%	0 0%	3 30.0%	1 10.0%
완전폐쇄형	48 (100%)	22 45.8%	2 4.2%	2 4.2%	22 45.8%
Ungrouped Cases	53	32 60.4%	8 15.1%	1 1.9%	12 22.6%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 57.95%

Percent probability of correct classification : 25.00%

자기노출유형은 남편의 경우는 완전폐쇄형, 부인의 경우는 완전노출형이 가장 많았으며,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긍정적 자기노출에서는 상호노출형, 부정적 자기노출에서는 상호폐쇄형이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으며 네째,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을 판별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남편의 경우는 남성성 역할태도이고, 부인의 경우는 자아개념으로 나타나 모두 심리적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 자기노출을 측정함에 있어서 언어적인 자기노출만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비언어적인 자기노출까지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감정적 자기노출에 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박치화(1985).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과 결혼만족과의 관계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서해광(1985). 자기표출 훈련이 시험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윤길성(1984). 자기노출과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전길량(1988). 자기개방과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정원식(1968). 자아개념 검사법 요강. 서울 : 코리안 테스트 센터.
- 6) 조혜정(1983). 부부간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Balswick, J.(197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scale & an expression of emotion Scal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39, 140-146.
- 8) Bem, S.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9) Berger, P.L. & Keller, H.(1980). Marriage and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J.M. Henslin ed.,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 The Free Press.
- 10) Biller, H.B.(1971). *Father, child, and sex role*. Lexington, Massachusetts : Heath Lexington Books.
- 11) Chafetz, J.S.(1974). *Masculine/feminine or human*. Itasca, Illinois : F.E.Peacock Publishers, Inc.
- 12) Diamond, R.E. & Muntz, D.C.(1967). Ordinal position of birth and Self-disclosure in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21, 829-833.
- 13) Falk, D.R. & Wanger, P.N.(1985). Intimacy of self-disclosure and response processes as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5), 558-567.

- 14) Hoffman-Graff, M.A.(1977). Interviewer use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disclosure and interviewer-subject sex pair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184-190.
- 15) Jaffé, L.D. & Polansky, N.A.(1962). Verbal inaccessibility in young adolescents showing delinquent trend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Behavior*, 3, 105-111.
- 16) Jourard, S.M. & Lasakow, p.(1958). Some factors in self-disclosur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6(1), 91-98.
- 17) Lavin, L.O. & Lombardo, S.P.(1984). Self-disclosure and nonintimate disclosure to parents and best friends as a functions of Bem Sex role category. *Sex Roles*, 11(7/8), 735-744.
- 18) Levinger, G.& Senn, D.J.(1967). Disclosure of feelings in marriage. *Merrill-Palmer Quarterly* 13, 237-249.
- 19) Lunnenborg, P.W.(1970). Stereotypic aspect in masculinity-feminity measur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 113-118.
- 20) Rubin, Z., Hill, C.T., Peplau, L.A. & Schetter, C.D. (1980). Self-disclosure in dating couples : Sex roles and the ethic of open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2),305-317.
- 21) Scheiderer, E.G.(1977). Effects of instructions and modeling in producing self-disclosure in the initial clinical inter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378-384.
- 22) Shapiro, A. & Swensen, C.H.(1977). Self-disclosure as a function of self-concept and sex.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4,163-182.132)
- 23) Shapiro, G.S., Krauss, H.H. & Traux, C.B.(1969). Therapeutic conditions and disclosure beyond the therapeutic encou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6, 290-294.